

강진군, '1인 1수국 선물하기' 호응

전국 최초 생화 직거래 택배 판매

전국서 2만 6천 송이 주문 줄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화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강진군에서 추진한 회화 직거래 판매가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월과 3월에 전개한 '청자골 장미 선물하기 운동'을 TV, 신문,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8천만 원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실시한 코로나19 영상회의에서 이승우 군수가 직접 나서 21개 시장·군수가 동참해 회화 소비 촉진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 농협, 경찰, 교육청,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판매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택배 주문량만 4,500건이 접수돼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고 휴대폰 문자 한도가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주문량이 폭주했다. 이에 3일 주문 접수를 중단했던 군은 그동안 밀렸던 주문량을 모두 발송하고 4월 17일부터 2차로 수국 직거래 판매를 추진한다.

김양석 그린화훼법인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강진군과 생산자가 합심해 전국에서 최초로 생화를 택배 발송을 통해 직거래 판매했다.

전국에서 주문이 줄을 이으며 2만 6천 송이를 판매해 온라인 직거래 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수국 대중화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



다.

그린화훼법인은 4송이 박스(15,000원, 택배비 포함), 8송이 박스(28,000원, 택배비 포함)로 나누어 10,000송이 한정 수국 2차 택배 판매를 진행한다.

이승우 강진군수는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소비 환경에 발 맞춰 구입 고객에 대한 철저한 DB 관리와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강진산 수국을 적극 홍보하고 평생 고객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우량 수산종자 방류사업 실시

진도군이 최근 연안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 수산종자 방류사업 실시했다.

군은 수온 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와 치어 남획 등으로 인한 수산업의 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약 2,300만원 상당의 벤장어 8,500마리를 의신천과 소포만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벤장어는 10cm 이상의 크기로 전남해양 수산과학원 동부지부 민물고기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방류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어족보전을 위한 군의 노력에 감사 드린



다"며 "어업인들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통해 어업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수산자원과 관계자는 "풍부한 어족자원 확보로 민선 7기 수산분야 목표인 잡는 어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 '관심나눔 건강더함' 추진

드림스타트 참여자 대상

영암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되는 개학 연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쳐있는 드림스타트 전체아동 286명에 대해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그에 따라 '관심나눔 건강더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주 양육자 없이 생활하거나 생활 및 영양지도가 필요한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관심나눔 건강더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 '친환경 참숯' 본격 출하



보다 보름 가량 빨리 출하된다.

또한 비티민A, 시네올, 베티카로틴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돼 특유의 향과 건강 기능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150g 단위 소포장 판매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웰빙(well-being) 가정을 겨냥한 숙박 등 쭈 가공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함평참숯은 생산에서 포장까지 엄격한 관리를 받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전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흥군, 다채로운 블루경관 조성 '눈이 호강'

탐진강변에 각종 수목 식재, 토피어리 장식으로 볼거리 제공



장흥군이 블루경관 조성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최근 탐진강 유자관리와 지역 유류 토지를 활용한 경관숲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탐진강 지킴이 작업단'을 운영해 색다른 경관 조성에 나섰다.

'탐진강 지킴이 작업단'은 강변에 식재된 벚나무, 황금사철, 배롱나무, 흥가시 나무 등 수목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잔디밭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배토작업, 비료 살포, 예초작업 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탐진강을 만들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탐진강 제방 결사면에는 영산 흥과 황금사철나무를 이용하여 물 축제 흥보문구를 토피어리 형식으로 식재해 볼거리도 추가했다.

군은 앞으로 흥가시나무, 황금사철 등 관목류 식재를 통해 탐진강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아름답운 경관을 선사할 계획이다.

마을주변 유유토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경관조성도 눈길을 끌고 있다.

경관숲 조성사업은 장흥읍 행원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관숲 1호에 이어, 장흥읍 연산리부터 부산면 내안리 연결도로 구간을 황금사철나무 식재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경관숲 2호로 탄생 시켰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꾸준한 탐진강 관리와 경관숲 조성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페저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며, "맑은 물 푸른 숲의 지역자원을 잘 활용해 유동인구 500만명 시대를 여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형태의 층리구조와 습곡구조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또한 흥도의 해안은 급한 경사의 해식절벽과 악한 암석층이 떨어져 나가 형성된 해식동굴도 다수 존재한다.

신안=정승호 기자

신안 홍도, 지질 관람 망원경 설치

신안군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홍도에 천혜의 비경과 다양한 지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에 고성

능 관찰장비(망원경) 2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도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퇴적암인 사암과 변성암인 규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은 바위들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모여서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암이며, 규암은 사암이 오랜 기간 열과 압력을 받아 형성된 변성암으로 매우 단단하며 수평으로 책을 쌓아 올린 듯한

한평군은 지역 5대 특화작목 중 하나인 '함평참숯'이 이달부터 본격 출하된다고 최근 밝혔다.

함평 지역 3.4㏊에서 재배되고 있는 함평참숯은 자체 개발한 재배 기술로 인해 일반적인 쭈 출하시기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서치 아웃

2관 데드풀, 주디, 라라걸

3관 더 터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서치 아웃

4관 1917

5관 1917, 다크 워터스

6관 로건, 비밀정보원, 신과 나

7관 인비저블맨

8관 라라랜드, 생일

9관 라라랜드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앱코로 35(쌍암동)



LOTTE CINEMA 광주(백화점)

4관 오픈 더 도어

5관 원데이, 라라랜드, n번째 이별증

6관 라라랜드, 1917, 서치 아웃

문의전화 1544-88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대인동, 롯데백화점 9층)